

노후생활주택단지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과 노후 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Elderly Housing —Focuses on Conciousness of Living Arrangement for Elderly and Needs towards Elderly Housing—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住生活學科
敎 授 池 淳
敎 授 尹 福 子
研究助教 洪 英 基 · 金 恩 德
申 和 京 · 崔 希 在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 Soon Chi (Won)

Prof.; Bok Cha Yoon (Lee)

Research Assistant: Yung Kee Hong, Eun Duck Kim

Hwa Kyoung Shin, Hee Jae Choi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방법
- III. 결과 및 논의

- I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future demands of elderly housing and to give the basic data for elderly housing.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1) to investigate the conciousness of living arrangement for elderly; 2) to identify the needs towards private and group space, entertainment facilities, support facilities, and management methodes.

For the objective 1,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22 male adults(age 50 or older) selected from relatively high economic level in Seoul. For the objective 2, questionnaires were interviewed to 30 male adults(age 50 or older) who lived with their spouses only, selected from 322 respondents. Data from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χ^2 -test.

The mayor findings were:

* 주식회사 럭키개발 연구비 수혜연구의 보고서 요약임. 전문 보고서는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와 주식회사 럭키개발에 있음.

Objective 1: Conciousness to living arrangement for elderly.

1. Detached housing was identified as adequate type of housing for elderly.
2. Living with spouse only was the ideal living arrangement for elderly, which was effected by whether they were living with their married children or not.
3. The desirable location of elderly housing was suburb area of a city.
4. The conjugal role structure for the decision process of residence showed autonomic pattern.

Objective 2: Needs towards elderly housing

1. 76.7% of respondents were positive about elderly housing, but only 56.7% of respondents wanted to live in the elderly housing
2. In private space, respondents required the hand hold to be provided in the bath room.
3. In group space, most respondents needed convention room and room for group entertainment and leisure.
4. For entertainment facilities, respondents needed park, jogging course, library, and coffee shop.
5. For support facilities, all respondents needed shopping center, super marekt, drug store.
6. Respondents wanted joint management for gas, electricity, heating, air-conditioning and public service and individual management for milk and newspaper.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현대에 이르러 의학의 발달과 국민 영양상태의 호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크게 연장되고 있는 반면, 가족계획사업과 출산조절 기술의 발달로 아동의 수효는 상대적으로 감소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볼때 전체 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대 초까지는 노년화지수가 7%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11.2%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는 15.8%, 그리고 2000년에는 23.7%로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윤중주, 1982).

이와같이 가속화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증가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제한된 수입, 도시의 주택난, 빈번한 주거이동, 젊은 세대의 해외이동 격증 및 부중심의 사회생활 등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핵가

족화로 전환됨에 따라 노인들만의 독립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적절한 주거는 노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건강을 증진시켜준다(Carp, 1977)는 연구결과로 보아 노인의 주거문제는 여러가지 노인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진제국에서도 과거에는 노인서비스를 주로 현대적 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근래에는 가능한한 자신들이 가정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즉 자기 익숙한 환경에서 오래남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불필요하게 건강과 힘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적정규모의 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노후생활주택 계획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노인주택에 관한 연구는 양로원 등과 같은 시설주거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에 그쳤을뿐 일반 노인들의 심리나 주의식, 노후생활주택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나 희망사항, 노후생활주택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 5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의 주의식과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등을 조사하여 앞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을 계획할때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생활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은퇴기에 있는 노인과 은퇴준비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의 주의식과 노후생활주택에 대한 욕구등을 조사하여 노후생활주택에 대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노후생활주택단지 환경의 기준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의 주의식을 조사한다.
- 2) 노후생활주택단지내의 생활공간, 위락시설, 생활여건시설, 관리방법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그 뜻을 제한한다.

1) 노후생활주택단지

은퇴후의 독립된 생활을 위하여 특별히 계획된 주택과 위락시설, 생활여건시설등이 편리하게 갖추어진 주택단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모여사는 단지를 의미하며, 양로원이나 요양소같은 시설주거는 그 개념에서 제외한다.

2) 주의식

주택 또는 주생활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심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동안의 주택유형, 건강이나 기력이 쇠약해진 이후

의 주거형태, 노후생활주택단지로의 이주의사, 노후생활주택의 적정평수와 희망유형 등에 대한 의견이나 반응을 의미한다.

3) 생활공간

(1) 개인생활공간

노후생활주택단지내의 개인소유의 주거단위(housing unit)로서 침실, 욕실, 거실, 부엌, 식당, 베란다, 현관, 다용도실, 창고, 가정부방, 서재, 응접실, 정원 등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의미한다.

(2) 공동생활공간

노후생활주택단지내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오락실, 세탁실, 손님방 등의 공간을 의미한다.

4) 위락시설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로서 테니스, 수영, 탁구, 볼링 등의 스포츠시설, 클럽활동 및 바둑, 장기 등의 공동생활을 위한 시설과 산책로, 공원, 경작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의미한다.

5) 생활여건시설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때 반드시 필요한 비주거용 시설로서 쇼핑센터, 시장, 슈퍼마켓, 금융기관, 이·미용실, 음식점, 세탁소 등의 상업시설과 공공전화, 우체국, 약국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물 확대 해석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조사대상자는 만 50세 이상으로 하되 노후생활주택의 실제 구매능력을 고려하여 중·상류층이상으로 제한한다.

2)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는 개인생활공간, 공동생활공간, 위락시설, 생활여건시설, 관리방법에 대한 욕구만으로 제한한다.

3) 조사대상지역은 서울시 만으로 제한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84년 12월에 착수하여 1985년 11월

에 완성하였다.

1. 도구작성

노후의 주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와 노후 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 위한 면접 조사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의 내용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 노후의 주거형태에 대한 의식(기혼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 건강이나 기력이 쇠약해진 이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거형태)
- (3) 노후생활주택에 대한 의식(주택유형, 주택 명수, 소유형태, 적정관리비 수준)
- (4)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의식(단지위치, 자녀와의 거리, 입주 의사, 이웃관계)

(5) 주택에 대한 의사결정

2) 면접조사의 내용

- (1) 개인생활공간(침실, 욕실, 거실, 부엌, 식당, 기타공간)에 대한 욕구
- (2) 공동생활공간(회의실, 오락실, 스낵, 세탁실, 손님방)의 필요도
- (3) 위락시설(오픈스페이스, 여가생활 시설)의 필요도
- (4) 생활여건시설의 필요도
- (5) 관리방법

2. 예비조사

본 조사도구의 내용이 응답자에게 이해되는 정도와 구성상의 문제점, 조사시 소요시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985년 4월 11일부터 1985년 6월 25일까지 정릉 노인대학과 원로원 및 안식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은퇴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이해가 어려운 문항과 구성상의 문제점 및 미비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관련분야의 교수 3인에게 타당성을 검사받아 조사도구를 완성하여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3. 본조사

노후의 주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자로서 만 50세~65세사이의 은퇴준비자와 단 55세이상의 은퇴자들 대상으로 1985년 7월 1일부터 1985년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478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에 신뢰성이 있는 설문지 332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노후의 주의식에 대해 조사한 대상자중 현재 노부부단 살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원 8명이 1985년 8월 1일부터 1985년 9월 30일까지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부부단 사는 가정 69가구중 방문이 가능했던 38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실제로 이용가능한 30가구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분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 전산 처리하였다. 연구내용별 사용된 통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노후의 주의식 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물리적 환경 배경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2) 노후생활의 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형태와 노후생활주택, 노후생활 주택단지, 주택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물리적 환경 배경과 주의식과의 관련성 검증에 대해서는 χ^2 -test를 하였다.

2)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조사

(1) 면접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물리적 환경배경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2) 노후생활주택단지의 각 공간에 대한 욕구, 노후생활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Ⅲ. 조사결과 및 논의

1. 노후의 주의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물리적 환경배경을 조사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 연령, 출신도, 최종학력, 종교, 직업,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은퇴여부 및 시기, 은퇴준비 여부, 월평균생활비, 생활비 출처, 건강상태, 건강관리법, 평소 즐기는 일, 그룹활동 및 그룹활동 참여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50세~59세가 69.3%로 가장 많았으며, 60세~69세가 17.2%, 70세 이상이 13.5%였고, 평균연령은 58.1세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74.1%, 고등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이 18.4%로, 고등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이상이 92.5%를 차지하여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개신교)가 25.0%, 불교가 19.3%였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38.6%로 나타났다.

직업은 은퇴자는 은퇴이전의 직업을, 미은퇴자는 현재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전문경영인이나 일반회사원이 26.5%, 전문직(의사, 교수, 변호사 등)이 22.0%, 공무원이나 군인이 20.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4.6%), 부부만 사는 경우가 20.8%였고,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11.4%로 나타났다.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이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자중 미은퇴자가 68.1%로 은퇴자(31.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은퇴한 사람 중에서도 은퇴시기가 4년미만인 경우가 34.0%로 가장 많았다.

현재 월평균생활비는 60만원~90만원 미만이

28.0%로 가장 많았으며, 30만원~60만원 미만이 27.7%, 90만원~120만원미만이 20.8%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5.9%, 별다른 병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2.0%로 대부분이 건강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의 건강관리법으로는 식사에 주의한다고 44.0%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산보나 조깅등의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36.4%), 파르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30.7%)으로 나타났다.

평소 즐기는 일로는 TV 시청이나 독서, 신문읽기 등이 74.1%로 가장 많았으며, 정원손질 및 화초나 재소가꾸기가 30.4%, 산보나 조깅이 29.2%, 그림이나 서예, 바둑 및 장기가 25.9%로 나타나 정적인 일이나 가벼운 체력소모를 요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활동으로는 친목회, 계, 클럽, 노인회등 사교모임에 주로 참여하고(52.1%), 직업과 관련된 활동(45.2%)과 스포츠나 취미활동(34.3%)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65.7%가 모일때면 거의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2) 물리적 환경 배경

물리적 환경 배경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과 주택평수 및 주택소유형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이 55.4%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39.8%, 연립주택이 4.5%로 나타났다.

현 주택의 평수(단독주택인 경우 전평, 아파트인 경우 전용면적)는 40평~50평미만이 21.6%, 30평~40평미만이 20.7%였으며 평균주택평수는 46.3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소유형태는 96.4%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은 주거형태와 노후생활주택, 노후생활주택단지, 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분류하여 서술한다.

(1) 주거형태

노후생활의 주거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혼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와 건강이나 기력이 쇠약해진 다음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주거형태를 조사하

〈표 1〉 현재의 동거형태와 자녀가 결혼한 후 바라지하게 생각하는 동거형태와의 χ^2 -test

자녀 결혼후 바라지 한 동거형태	기혼자녀와 동거		자녀세대와 별거		계	
	f	%	f	%	f	%
현재의 동거형태						
노부부만 동거	9(-10.1)	2.7	60(+10.1)	18.1	69	20.8
기혼자녀와 동거	60(- 2.3)	18.1	165(+ 2.3)	49.7	225	67.8
기혼자녀와 동거	23(+12.5)	6.9	15(-12.5)	4.5	38	11.4
계	92	27.7	240	72.3	332	100.0

$$\chi^2=27.96^{***}$$

*** .001수준에서 유의적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였다. 노후생활의 바람직한 동거형태로 응답자의 72.3%가 기혼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과 건강상태, 은퇴여부나 은퇴준비 여부 및 현재 자녀와의 동거형태와 결혼한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를 χ^2 -test 하였다. 그 결과 연령, 건강상태, 은퇴여부나 은퇴준비여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동거형태와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관찰빈도와 기대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모두 결혼한 후에도 기혼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였으며, 현재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가정이나 노부부만 사는 가정에서는 결혼한 자녀와 별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나 건강상태, 은퇴여부 및 은퇴준비 여부 보다는 현재 자녀와의 동거형태가 자녀가 모두 결혼한 후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은퇴후 건강이나 기력이 쇠약해진 다음에는 기혼자녀와의 동거를 45.7%가 희망하여 기혼자녀와의 동거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기혼자녀와의 별거희망이 54.3%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한 경우, 가정부나 파출부 등 돌보아 줄 사람을 두고 현재 사는

집에서 그대로 사는 것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의로서일을 갖춘 주택단지에서 희망하는 응답자가 33.7%, 시설이 훌륭한 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11.2%로 나타났다.

은퇴후 건강이나 기력이 쇠약해진 이후의 주거형태는 연령과 건강상태 및 현재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후생활주택

노후생활주택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은 은퇴후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바람직한 주택유형과 일반적으로 노후생활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주택유형, 주택평수, 소유형태, 적정관리비 수준으로 분류하여 서술한다.

① 주택유형

은퇴후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택유형은 응답자의 40.0%가 규모가 작고 편리한 단독주택을,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8.2%가 희망하였으며 규모가 작고 관리하기 편리한 아파트를 16.6%가 희망하였다.

또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들만의 전원형 주택단지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도 10.3%나 되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고 응답한 93사례(28.2%)를 추출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 및 평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단독주택인 경우는 70명이상이 22.6%로 가장 많았으며, 40명~49명미만이 19.4%, 50명~59명미만이 16.1%, 60명~69명 미만이 14.5%

〈표 2〉 연령과 은퇴후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의 주택과의 χ^2 -test N=330

연령	은퇴후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때의 주택		지금 살고 있는 집		규모가 작고 관리하기 편리한 주택		규모가 작고 관리하기 편리한 아파트		아파트 단지에 몇 개의 노인들이 특별히 계된 곳		노후생활을 즐길수 있는 노인형 주택		계	
	f	%	f	%	f	%	f	%	f	%	f	%	f	%
50세~59세	49(-15.5)	14.9	104(+12.4)	31.5	39(+0.8)	11.8	11(-.1)	3.3	26(+2.4)	7.9	229	69.4		
60세~69세	25(+ 8.9)	7.6	18(- 4.8)	5.5	7(-2.5)	2.1	2(-.8)	.6	5(-.9)	1.5	57	17.3		
70세 이상	19(+ 6.6)	5.8	10(- 7.6)	3.0	9(+1.7)	2.7	3(+.9)	.9	3(-1.5)	.9	44	13.3		
계	93	28.2	132	40.0	55	16.7	16	4.8	34	10.3	330	100.0		

$\chi^2=66.62^{***}$

*** .001수준에서 유의적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표 3〉 현재의 건강상태와 은퇴후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의 주택과의 χ^2 -test N=330

현재의 건강상태	은퇴후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때의 주택		지금 살고 있는 집		규모가 작고 관리하기 편리한 주택		규모가 작고 관리하기 편리한 아파트		아파트 단지에 몇 개의 노인들이 특별히 계된 곳		노후생활을 즐길수 있는 노인형 주택		계	
	f	%	f	%	f	%	f	%	f	%	f	%	f	%
건강하다	30(+5.8)	9.1	30(- 4.4)	9.1	17(+2.7)	5.2	2(-2.2)	.6	7(-1.9)	2.1	86	26.1		
그저 그렇다	50(-7.8)	15.2	92(+10.0)	27.9	37(+2.8)	11.2	11(+1.1)	3.3	15(-6.1)	4.6	205	62.1		
건강하지 못하다	13(+2.0)	3.9	10(- 5.6)	3.0	1(-5.5)	.3	3(+1.1)	.9	12(+8.0)	3.6	39	11.8		
계	93	28.2	132	40.0	55	16.7	16	4.8	34	10.3	330	100.0		

$\chi^2=25.40^{**}$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로 40명 이상이 73.1%로 나타나 비교적 명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는 30명~39명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20명미만과 20명~29명 미만, 40명~49명미만이 각각 14.8%로 나타나 단독주택에 비해 비교적 명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후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주택유형이 연령이나 현재의 건강상태 및 현재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하였다.

그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에서,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3).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관찰빈도와 기대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50세~59세의 연령층에서는 규모가 작고 관리하기 편리한 단독주택을 은퇴후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바람직한 주택유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이미 노후생활을 위해 이주한 주택이기 때문이거나 연령증가에 따른 과거집착으로, 이주로 인한 환경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현재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표 4〉 현 주택의 유형과 노후생활에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주택유형과의 χ^2 -test N=329

현 주택 유형	노후생활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계	
	택 유형	f	%	f	%	f	%	f	%	f	%	
단독주택		128(+26.2)	38.9	38(-23.9)	11.6	13(-1.4)	4.0	3(-.9)	.9	182	55.4	
아파트		48(-25.3)	14.6	70(+25.4)	21.3	9(-1.4)	2.7	4(+1.2)	1.2	131	39.8	
연립주택		7(-1.4)	2.1	4(-1.1)	1.2	4(+2.8)	1.2	0(+.3)	.0	15	4.5	
기타		1(+.5)	.3	0(-3.4)	.0	0(-.1)	.0	0(-.1)	.0	1	.3	
계		184	55.9	112	34.1	26	7.9	7	2.1	329	100.0	

$$\chi^2=86.33^{***}$$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표 5〉 현재 주거형태와 노후생활 주택의 유형과의 χ^2 -test

현재 주거형태	노후생활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계	
	택 유형	f	%	f	%	f	%	f	%	f	%	
노부부단 동거		27(-11.6)	8.2	31(+7.5)	9.4	10(+4.5)	3.0	1(-.5)	.3	69	21.0	
미혼자녀와 동거		130(+5.6)	39.5	71(-4.6)	21.6	15(-2.5)	4.6	6(+1.3)	1.8	222	67.5	
기혼자녀와 동거		27(+5.7)	8.2	10(-2.9)	3.0	1(-2.0)	.3	0(-.8)	.0	38	11.6	
계		184	55.9	112	34.0	26	7.9	7	2.1	329	100.0	

$$\chi^2=15.45^*$$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건강상태가 그저 그런 경우는 규모가 작고 관리하기 편리한 단독주택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경우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들만의 전원형 주택을 노후의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바람직한 주택 유형으로 생각하였다.

앞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고 비교적 평수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후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바람직한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라 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평수가 비교적 큰 단독주택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건강과 신체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전원형 주택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으로는 단독주

택(55.9%)이 적당하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파트는 34.0%를 차지하였다.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유형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유형과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 한 결과 각각 $p < .001$ 수준과 $p <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5).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관찰빈도와 기대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는 단독주택을, 아파트에 사는 경우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에 사는 경우는 연립주택을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살고있는 주택에 만족하여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주택유형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기혼자녀나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인

<표 6> 원 주택의 평수와 노후생활 주택의 적정 평수와의 χ^2 -test

노후생활 주택의 평수	20평 미만		20평~30평미만		30평~40평미만		40평~50평미만		50평이상		계	
	f	%	f	%	f	%	f	%	f	%	f	%
20평 미만	8(+6.0)	2.4	7(-1.0)	2.1	2(-2.6)	.6	0(-1.3)	.0	0(-1.1)	.0	17	5.2
20평~30평미만	16(+9.3)	4.9	39(+11.6)	11.9	3(-12.7)	.9	0(-4.4)	.0	0(-3.7)	.0	58	17.7
30평~40평미만	4(-4.0)	1.2	38(+5.9)	11.6	21(+2.3)	6.4	3(-2.2)	.9	2(-2.4)	.6	68	20.7
40평~50평미만	4(-4.2)	1.2	37(+3.4)	11.3	24(+4.7)	7.3	5(-.4)	1.5	1(+.8)	.3	71	21.6
50평~60평미만	3(-2.9)	.9	20(-4.1)	6.1	18(+4.2)	5.5	5(+1.1)	1.5	5(+1.7)	1.5	51	15.5
60평~70평미만	2(-0.9)	.6	6(-5.8)	1.8	11(+4.2)	3.4	5(+3.1)	1.5	1(-.6)	0.3	25	7.6
70평 이상	1(-3.4)	.3	8(-10.0)	2.4	10(-0.3)	3.0	7(+4.1)	2.1	12(+9.6)	3.7	38	11.6
계	38	11.6	155	47.3	89	27.1	25	7.6	21	6.4	328	100.0

$\chi^2=137.86^{**}$

** .01 이수준에서 유의적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표 7> 월평균 생활비와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평수와의 χ^2 -test

N=331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의 월평균 생활비	10평~20평미만		20평~30평미만		30평~40평미만		40평~50평미만		50평이상		계	
	f	%	f	%	f	%	f	%	f	%	f	%
30만원미만	9(+7.3)	2.7	6(-1.1)	1.8	0(-4.0)	.0	0(-1.2)	.0	0(-1.0)	.0	15	4.5
30만원~60만원미만	16(+5.4)	4.8	62(+18.4)	18.7	9(-15.7)	2.7	3(-4.2)	.9	2(-3.8)	.6	92	27.8
60만원~90만원미만	10(-.6)	3.0	42(-1.6)	12.7	32(+7.3)	9.7	6(-1.2)	1.8	2(-3.8)	.6	92	27.8
90만원~120만원미만	2(-5.9)	.6	27(-5.7)	8.2	30(+13.1)	9.1	5(-.4)	1.5	5(+.6)	1.5	69	20.8
120만원 이상	1(-6.2)	.3	20(-9.9)	6.0	18(+1.1)	5.4	12(+7.1)	3.6	12(+8.0)	3.6	63	19.0
계	38	11.5	157	47.4	89	26.4	26	7.5	21	6.3	331	100.0

$\chi^2=114.97^{***}$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경우는 단독주택이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편리하다고 하였으나 노후부만 사는 가정은 아파트가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 함께 살아서 집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이상적인 노후생활주택이 될 수 있으나 노후부만 사는 경우 관리상 어려운 점으로 인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인에게는 아파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단독주택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

된다.

② 주택평수

주택규모는 25평내의(47.6%)와 35평내의(26.8%)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주택의 적정평수가 원 주택의 평수와 현재의 월평균생활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한 결과, 각각 $p<.01$ 수준과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현재 20평 미만에 사는 경우는 20평미만이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적당한 규모라고 하였으며 20평

N=332

<표 8> 월평균 생활비와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의 관리비와의 χ^2 -test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의 관리비 월평균 생활비	월 10만원 미만		월 10만원~15만원 미만		월 15만원~20만원 미만		월 20만원~25만원 미만		월 25만원~30만원 미만		월 30만원 이상		계	
	f	%	f	%	f	%	f	%	f	%	f	%	f	%
30만원 미만	12(+ 6.2)	3.6	3(-2.2)	.9	0(-1.9)	.0	0(-1.1)	.0	0(-.4)	.0	0(-.5)	.0	15	4.5
30만원~60만원미만	54(+18.3)	16.3	24(-8.1)	7.2	6(-5.6)	1.8	5(-1.9)	1.5	1(-1.5)	.3	2(-1.0)	.6	92	27.7
60만원~90만원미만	38(+ 1.9)	11.4	41(+8.5)	12.3	5(-6.8)	1.5	4(-3.0)	1.2	1(-1.5)	.3	4(+ .9)	1.2	93	28.0
90만원~120만원 미만	15(-11.8)	4.5	25(+ .9)	7.5	16(+7.3)	4.3	9(+3.3)	2.7	3(+1.1)	.9	1(-1.3)	.3	69	20.8
120만원 이상	10(-14.5)	3.0	23(-.1)	6.9	15(+7.0)	4.5	7(+2.3)	1.2	4(+ .9)	1.2	4(+ .9)	1.2	63	19.0
계	129	38.9	116	34.9	42	12.7	25	7.5	9	2.7	11	3.3	332	100.0

$\chi^2=72.22^{***}$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30명 미만에 사는 경우는 30명미만이, 30명~40명미만에 사는 경우는 20명~30명미만이, 40명~50명미만과 50명~60명미만 및 60명~70명미만에 사는 경우는 30명~40명미만이 노후생활주택으로 적정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70명이상에 사는 경우는 40명 이상이 노후생활주택으로 적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20명 미만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후생활주택으로 원주택보다는 적은 규모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월평균 생활비가 30만원미만인 가정은 10명~20명미만이, 30만원~60만원미만인 가정은 20명~30명미만이, 60만원~90만원미만인 가정과 90만원~120만원 미만인 가정은 30명~40명미만이, 그리고 월평균생활비가 120만원이상인 가정에서는 40명이상이 노후생활주택의 규모로 적정하다고 하였다. 즉, 현재 가정의 월평균생활비가 많은 가정일수록 노후생활주택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택규모가 증가하였다.

이는 주택선택시 가정의 월평균수입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Meeuwig(1970)의 연구결과와 같이 월평균생활비가 노후생활주택규모를 결정하는 또 주요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주택소유형태 및 관리비수준

주택소유형태는 본인명의로 구입하기를 대부분의 응답자(77.0%)가 원하고 있었으며, 노후생활주택의 관리비는 월 15만원미만이 적당하다고 한 경우가 73.8%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주택의 적정관리비 수준이 현재의 월평균생활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리비수준과 월평균생활비와의 χ^2 -test 한 결과, $p<.001$ 수준에서 현재의 월평균생활비에 따라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노후생활주택의 관리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즉, 월평균생활비가 30만원미만인 가정과 30만원~60만원미만인 가정은 월 10만원미만을 적정관리비 수준으로 생각하였으며, 월평균생활비가 60만원~90만원미만인 가정은 월 10만원~15만원미만을, 그리고 월평균생활비가 90만원~120만원미만인 가정과 120만원이상인 가정은 월 15만원~20만원 미만을 적정한 관리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연령과 노후생활을 보내기 적합한 단지의 위치와의 χ^2 -test

N=330

연령	단지의 위치		도시근교의 전원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		기 타		계	
	f	%	f	%	f	%	f	%	f	%
50세~59세미만	8(-8.6)	2.4	200(+7.2)	60.6	20(+2.7)	6.1	0(-1.4)	.0	228	69.1
60세~69세미만	11(+6.9)	3.3	44(-4.2)	13.3	1(-3.3)	.3	1(+.7)	.3	57	17.3
70세 이상	5(+1.7)	1.5	35(-3.0)	10.6	4(+.9)	1.2	1(+.7)	.3	45	13.6
계	24	7.3	279	84.5	25	7.6	2	.6	330	100.0

$\chi^2=25.21^{***}$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표 10〉 월평균 생활비와 노후생활주택 단지 입주여부의 χ^2 -test

N=330

노후 생활주택단지 입주여부	입주하겠다		입주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계	
	f	%	f	%	f	%	f	%
30만원 미만	13(+5.7)	3.9	0(-3.6)	.0	1(-2.1)	.3	14	4.2
30만원~60만원미만	44(-4.0)	13.3	29(+5.6)	8.8	19(-1.6)	5.8	92	27.9
60만원~90만원미만	47(-1.5)	14.2	26(+2.3)	7.9	20(-.9)	6.1	93	28.2
90만원~120만원미만	40(+4.0)	12.1	11(-6.6)	3.3	18(+2.5)	5.5	69	20.9
120만원 이상	28(-4.3)	8.5	18(+2.2)	5.5	16(+2.1)	4.8	62	18.8
계	172	52.1	84	25.5	74	22.4	330	100.0

$\chi^2=16.10^*$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이는 월평균생활비가 많은 가정일수록 노후생활 주택의 평수가 큰 것을 원한다는 앞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평수가 큰 것을 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관리비 수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노후생활주택단지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사항으로 노후생활주택 단지의 위치, 단지와 자녀와의 거리 및 자녀와의 만나는 횟수, 노후생활주택단지로의 입주 의사, 단지내의 이웃관계를 조사하였다.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적합한 곳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도시근교의 전원(93.0%)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공기가 맑은 곳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자녀가 사는 장소까지의 거리는 상관없다는 경우가 42.7%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로 20분

이내의 거리가 16.2%, 자동차로 한시간이내의 거리가 15.9%, 걸어서 10분이내의 거리가 14.6%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단나는 횟수는 주 1회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일이 있을 때마다 단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2.4%, 한달에 두번이 16.5%, 한달에 한번이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장소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후생활 장소와 연령을 χ^2 -test 한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50세~59세의 연령층에서는 도시근교의 전원이나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을, 60세이상의

N=299

〈표 11〉 종교와 이웃특성과의 χ^2 -test

종교	이웃부성		경제수준이 같은 사람들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		종교가 같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하는 사람들		서로 간 모르는 사람들		아무래도 상관없 다		계	
	f	%	f	%	f	%	f	%	f	%	f	%	f	%	f	%
불교	36(+7.0)	12.1	2(-1.5)	.7	0(-4.3)	0	12(+3.6)	4.0	2(-.1)	.7	9(-4.9)	3.0	61	20.5		
천주교	13(-1.2)	4.4	1(-.7)	.3	4(+1.9)	1.3	3(-1.1)	1.0	2(+1.0)	.7	7(+.2)	2.3	30	10.0		
기독교	29(-4.2)	9.7	4(+.1)	1.3	15(+10.1)	5.0	3(-6.6)	1.0	1(-1.3)	.3	18(+2.1)	6.0	70	23.4		
유교	10(-.9)	3.3	2(+.7)	.7	1(-.6)	.3	4(+.8)	1.3	1(+.2)	.3	5(-.2)	1.7	23	7.7		
기타	54(-.6)	18.0	8(+1.5)	2.7	1(-7.1)	.3	19(+3.2)	6.4	4(+.2)	1.3	29(+2.8)	9.7	115	38.4		
계	142	47.5	17	5.7	21	7.0	41	13.7	10	3.3	68	22.7	299	100.0		

$\chi^2=52.33***$

*** .001 수준에서 유의차임.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만큼 빼 수치임.

연령층에서는 도심지를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적합한 곳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단 노인외 과거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환경변화 및 타한 민감성으로 인해 60세이상의 연령층이 50세~59세의 연령층보다 이전까지 생활해오던 도심지를 떠나서 노후생활을 보낸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노후생활주택단지가 생긴다면 그곳에 입주하여 살것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1.8%가 입주하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노인주택단지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22.9%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주택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자녀내외나 손자와 합작 또는 가까이 살고 싶어서(43.4%), 은퇴자나 노인끼리 사는 것이 싫어서(26.9%), 정든 집이나 동네를 떠나기 어려워(15.7%)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노후생활주택단지에서의 입주희망 여부가 연령과 건강상태, 은퇴여부 및 은퇴준비여부, 동거형태 및 현재의 월평균생활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한 결과 노인의 연령이나 학력, 은퇴여부, 동거형태, 배우자유무, 현재의 건강상태 및 은퇴준비여부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생활비와는 .0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관찰빈도와 기대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월평균 생활비가 30만원미만인 가정과 90만원~120만원미만인 가정은 단일 노후생활주택단지가 생긴다면 그곳의 입주하겠다고 하였으나 월평균생활비가 30만원~90만원미만인 가정은 노후생활주택단지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월평균생활비가 120만원이상인 가정은 입주를 하지 않거나 아직은 입주여부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월평균생활비, 즉 가정의 소득이 비교적 낮은 계층(월평균생활비 30만원미만)과 비교적 높은 계층(월평균생활비 90만원~120만원미만)에서 노후생활주택단지로의 입주불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노후생활주택단지는 이 두 계층을 대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중의 하나인 단지내의 이웃특성으로, 조사대상자의 43.6%가 경제수준이 비슷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클럽활동(친목단체)을 같이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12.5%로 나타난 반면, 이웃에 어떠한 사람이 살아도 상관없다는 비율도 20.7%나 되었다.

노후생활주택단지내의 이웃특성이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X²-test 한 결과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불교를 믿는 경우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나 클럽활동(친목단체)을 같이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천주교나 기독교를 믿는 경우는 종교가 같은 사람이 단지내에서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주택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이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문제를 규정하고 가치나 기타 제 기준에 비추어서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취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장명옥, 1976)

의사결정 단계는 학자들에 따라 달리 분류되고 있으나 Davis와 Rigaux(1979)는 의사결정과정은 (1) 문제인식단계, (2) 정보탐색 및 평가단계, (3)

대안을 결정하는 마지막 의사결정단계의 3과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에 대한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선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과정을 문제인식단계, 정보탐색 및 평가단계,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의 세 단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제인식단계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40.1%, 남편이 하는 경우가 28.6%, 아내가 하는 경우가 24.0%로 나타났다. 정보탐색 및 평가단계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44.3%, 아내가 하는 경우가 26.5%, 남편이 하는 경우가 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결정단계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45.9%, 남편이 하는 경우가 38.0%, 아내가 하는 경우가 11.2%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부부공동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결정의 부부역할유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모집단 332개중 의사결정 3단계에 부부공동이나 남편, 아내라고만 응답한 설문지 288개를 추출하여 Davis와 Rigaux(1979)가 분류한 4가지 역할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주택에 대한 부부의 역할유형은(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표 12〉 주택의 의사결정 각 단계에서의 부부의 역할구조 분포

N=288

	남편		공동		부인		합계		평균치***
	f	%**	f	%**	f	%**	f	%	
문제인식단계	88	30.6	124	43.1	76	26.4	299	100	1.96
정보탐색및평가단계	63	21.9	143	48.7	82	21.9	285	100	2.07
최종결정단계	114	39.6	141	49.0	33	11.5	288	100	1.72

* H.L. Davis and B.P. Rigaux, "Perception of Marital Roles in Decis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June, 1979, pp.52~54.

부부의 역할유형은 역할유형평균치와 부부공동참여정도(%)로 분류하며, 남편지배형(의사결정과정에서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경우), 부인지배형(의사결정과정에서 부인이 주로 결정하는 경우), 부부자율형(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부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부부일치형(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4가지 유형이 있다.

** H.L. Davis and B.P. Rigaux는 "Perception of Marital Roles in Decis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June, 1979, pp.53~55에서 부부의 역할유형 중 부부공동참여정도(%)가 50%이상인 경우는 부부일치형, 50% 이하인 경우는 부부자율형으로 분류하였음.

*** H.L. Davis and B.P. Rigaux, "Perception of Marital Roles in Decis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June, 1979, pp.53~55. 부부의 역할유형중 역할평균치는 각 문항마다 제시된 응답범주를 남편 1점, 부부공동 2점, 부인을 3점을 주어 각 의사결정 단계 마다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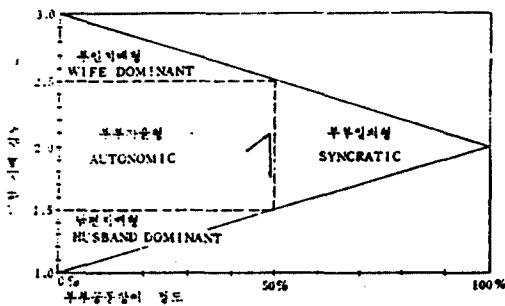
① 문제인식단계에서의 주택에 대한 부부의 역할유형은 역할평균치가 1.96이고 부부공동참여정도가 43.1%로 부부자율형으로 나타났다.

② 정보탐색 및 평가단계에서의 주택에 대한 부부의 역할유형은 역할평균치가 2.07이고 부부공동참여정도가 48.7%로 부부자율형으로 나타났다.

③ 최종결정단계에서의 주택에 대한 부부의 역할유형은 역할평균치가 1.72이고 부부공동참여정도가 49.0%로 부부자율형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Davis와 Rigaux(1979)가 개발한 삼각형 모델에 도식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의사결정과정에 따른 부부의 역할유형의 변화



- 1: 문제인식단계
- 2: 정보탐색 및 평가단계
- 3: 최종결정단계

출처 : Davis, H.L. and B.P. Rigaux, "Perception of Marital Roles in Decis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June, 1979, p. 57.

본 연구의 결과, 주택에 대한 부부의 의사결정 역할유형은 의사결정 전 단계에 걸쳐서 부부자율형으로 나타났으나 Davis와 Rigaux가 개발한 삼각형 모델에 도식해보면 남편지배형쪽으로 치우치면서 부부자율형과 부부일체형의 거의 경계부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부부가 살 곳을 결정하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5.4%로 부부공동형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Davis와 Rigaux

(1979)의 연구에서도 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은 부부 일치형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에 관한 조사결과 는 노후 생활 주택단지의 필요성, 개인생활공간, 공동생활공간, 위락시설, 생활여건시설에 대한 욕구 및 노후생활주택의 관리방법의 순으로 분류하여 서술한다.

1) 노후생활주택단지의 필요성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노인들 스스로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후생활주택의 필요성 여부와 노후생활주택단지로의 이주의사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 사회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이 특별히 필요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7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노후생활주택단지가 생긴다면 그곳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는 56.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객관적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주택이나 주택단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자신 스스로 그러한 주택이나 주택단지에 입주할 의사가 많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주택단지라는 것이 희박한 데 없는 외로운 노인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한 노인들이 모여사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노후생활주택단지가 생길 경우, 그곳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6.7%이고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예정거주기간을 조사한 결과, 사망시까지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6.5%나 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홍보등을 통해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모든 시설이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갖추어지게 되면 노후생활주택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개인생활공간에 대한 욕구

노후생활주택의 개인생활공간에 대한 욕구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침실, 욕실, 거실, 부엌, 식당, 창고, 다용도실, 서재등의 각 실별로 분류하여 서

술한다.

(1) 침 실

앞으로 희망하는 침실수는 2개인 경우와 3개인 경우가 각각 40.0%로, 조사대상자의 80%가 2개 내지 3개정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희망갯수는 2.9개였다.

침실의 희망면적은 4명~5명미만인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5명~6명미만을 희망한 사람이 30.0%였고, 평균희망면적은 4.8평이었다.

침실의 유형은 입식(13.3%)보다는 좌식을 희망하는 비율(86.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 욕 실

욕실수는 1개를 희망하는 경우가 80.0%, 2개를 희망하는 경우가 20.0%였으며, 평균희망갯수는 1.2개였다.

희망면적은 1.5명~2.0명미만인 경우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1.0명~1.5명미만이 26.6%, 2.0명~2.5명미만이 13.3%였고, 평균희망면적은 1.8평이었다.

욕실의 유형으로는 욕조-번기 공동형을 희망하는 경우가 73.3%, 욕조와 번기가 벽으로 분리된 형을 희망하는 경우가 20.0%, 욕조와 번기가 커튼으로 분리된 형을 희망하는 경우가 6.7%였다. 응답자 전원이 욕조와 샤워기가 모두 갖추어져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50%는 욕조열에 안전손잡이가 갖추어져 있기를 희망하였다.

(3) 거 실

거실-부엌-식당의 연결형태로는 D-K, L형을 희망하는 경우가 70.0%, 독립형을 희망하는 경우가 23.3%, L-D-K형을 희망하는 경우가 6.7%였으며, L-D, K형과 L-K형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거실의 유형으로는 독립형이나 L-D-K형을, 그리고 부엌의 유형으로는 독립형이나 D-K형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실의 유형별 평균희망면적은 독립형은 희망하는 경우가 7.2명, L-D-K형을 희망하는 경우가 5.6명인 것으로 나타나 독립형 희망자들이 L-D-K형 희망자들보다 더 넓은 면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의 유형은 침실의 경우와는 반대로 입식을

희망하는 비율이 90.0%, 좌식을 희망하는 비율이 10.0%였다. 따라서 앞으로 거실의 면적을 결정할 때에는 좌식 또는 입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가구배치에 융통성을 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부엌, 식당

부엌의 희망유형별 면적을 살펴보면 앞으로 독립형을 희망하는 7가구중 4명 이상을 희망하는 경우가 42.8%, 3명~4명미만을 희망하는 경우가 28.6%였으며, 평균희망면적은 3.4명이었다. D-K, L형을 희망한 21가구중에서는 3명~4명미만을 희망하는 경우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4명~5명미만과 5명~6명미만을 희망하는 경우가 각각 19.0%였다. 평균희망면적은 5.4명으로 나타났다.

식당의 희망면적을 보면 앞으로 식당을 부엌이나 거실과 따로 독립해서 설치하기를 희망한 7명중 2명~3명미만을 희망한 경우와 3명 이상을 희망한 경우가 각각 42.9%였으며 2명미만을 희망하는 경우가 14.2%였고 평균희망면적은 3.5명이었다.

(5) 기타공간

침실, 욕실, 거실, 부엌, 식당 이외의 공간중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용도실, 창고, 가정부방, 서재, 응접실, 정원, 담장 등의 기타공간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간은 창고(90.0%)였으며 다음은 다용도실(83.3%), 정원(70.0%)의 순이었다. 반면, 응접실(6.7%), 가정부방(20.0%) 등은 비교적 적은 수의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공간에 대한 희망사항을 각 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고갯수는 앞으로 1개를 희망하는 경우가 80.0%, 2개를 희망하는 경우와 창고가 필요없다고 한 경우가 각각 10.0%였다. 창고의 평균희망면적은 1.2명이었다.

다용도실의 갯수는 앞으로 다용도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83.3% 모두가 1개를 희망하고 있었다. 면적은 1.0명~2.0명미만을 희망한 경우가 48.0%, 2.0명 이상을 희망한 경우가 32.0%였으며, 평균희망면적은 1.4명이었다.

서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6.7%였으며 평균희망면적은 3.2명이었다.

담장설치의 필요성과 희망종류에 대한 질문에 담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0.0%였으며, 이들 중 66.7%가 나무 fence를, 나머지 33.3%는 시멘트나 벽돌담을 희망하였다.

3)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욕구

노후생활주택의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동생활공간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간은 회의실(90.0%)과 오락실(90.9%)이었으며, 동전(coin)을 사용하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53.4%가, 간식식당(스낵코너)에 대해서는 46.7%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단지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손님방에 대해서는 20.0%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회의실과 오락실의 경우 두 공간을 각각 따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한 사람이 63.3%,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하나의 공간을 두 용도로 겸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 사람이 36.7%였다.

4) 위락시설에 대한 욕구

노후생활주택의 위락시설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오픈 스페이스와 여가생활시설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오픈 스페이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은 공원(93.3%)이었으며, 다음은 산책로(83.3%), 경작지(80.0%)의 순이었다. 여가생활시설로는 다실(50.0%)과 도서관(56.7%)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위락시설을 계획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주택단지내에서의 그룹활동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지내에서의 그룹활동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6.7%였으며, 그룹활동 장소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5분~10분이내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5.0%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단지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단지버스(shuttle bus)를 운행해서 노인들이 그룹활동장소나 기타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생활여건시설에 대한 욕구

노후생활주택의 생활여건시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생활여건시설들을 예로 제시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그 결과 쇼핑센터, 슈퍼, 약국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은행은 96.7%가, 세탁소는 93.3%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미용실, 공공전화, 우체국등에 대해서는 각각 86.7%가, 목욕탕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각각 53.4%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여행상담소는 36.7%가, 보험회사는 23.3%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완전 격리를 피하기 위해서 주변에 사는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게 될 공공시설(예:동회, 우체국, 종교시설 등)들을 노인주택단지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3.2%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6) 노후생활주택의 관리방법

노후생활주택의 관리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희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스, 전기시설, 냉·난방시스템, 방범, 공공사무처리, 기타시설, 우편물이나 신문, 우유배달등에 대해 각각 단지공동관리 방법과 개인관리방법중 희망하는 방법을 택일하게 하였다.

그 결과 방법이나 세세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응답자전원이 단지공동관리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가스나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96.7%가, 난방시스템에 대해서는 93.3%가, 냉방시스템에 대해서는 56.7%가 단지공동관리방법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사무처리에 대해서는 83.3%가 단지공동관리방법을 희망하고 있었다.

우편물의 경우는 자 unit 까지 배달되는 개인관리방식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과 공동의 우편함을 사용하는 단지공동관리방식도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50.0%였다. 그러나 신문이나 우유는 개인관리방식을 희망하는 사람이 80.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 난방방식

난방은 시간제로 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 시간제약없이 하루종일 주는 것이 좋

다고 응답한 사람이 36.7%였으며 아무래도 상관 없다고 한 사람이 40.0%였다.

부분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9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공간에 다 부분난방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43.3%로 가장 많았고 칩실에 특히 부분난방시설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40.0%였다.

노인주택의 여러 생활공간중에서도 칩실은 부분난방이 가장 필요한 곳이므로 (Raschko, 1982), 모든 공간에 다 부분난방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칩실에만이라도 반드시 부분난방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

(2) 냉방방식

부분냉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0.0%,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3.3%로 나타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공동냉방시스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부분냉방의 필요장소에 대해서는 거실에 특히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23.3%로 가장 많았고 모든 공간에 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6.7%였다.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생활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은퇴기에 있는 노인과 은퇴준비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의 주의식과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노후생활주택에 대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 주거환경의 기준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노후의 주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 위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남자로 한정하였으며, 이중 실제로 노부부만 독립해서 살고 있는 가구를 추출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지는 332부, 면접조사지는 30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를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χ^2 -test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후의 주의식

(1) 노후생활의 바람직한 주거형태로는 대부분 기존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후 건강이나 기력이 쇠약해진 후에는 기존 자녀와의 동거희망률이 건강할 때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기존자녀와의 별거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노후생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가 34.0%였다.

노후생활주택유형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유형 및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택평수는 20평~40평미만이었으며, 현 주택의 평수와 월평균 생활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주택의 소유형태는 대부분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기를 희망하였다.

노후생활주택의 관리비는 월 15만원미만이 적당하다고 한 경우가 73.8%로 가장 많았으며, 적정 관리비 수준은 현재의 월평균 생활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적합한 곳으로는 대부분이 도시 근교의 전원을 희망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주택단지가 생긴다면 입주하겠다는 응답자가 51.8%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22.9%가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주택단지로의 입주여부는 가정의 월평균 생활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후생활주택단지내의 이웃은 경제수준이 비슷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3.6%였으며, 이웃에 어떠한 사람이 살아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0.7%나 되었다. 그리고 희망하는 단지내의 이웃특성은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 주택에 대한 부부의 의사결정 역할유형은

의사결정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부부 자율형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지배형 쪽으로 치우치면서 부부 자율형과 부부일치형의 경계부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노후생활주택단지에 대한 욕구

(1) 조사대상자의 76.7%가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노후생활주택단지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6.7%였다.

(2) 노후생활주택단지의 개인생활공간에 대한 욕구는 <표 13>과 같다.

<표 13> 노후생활주택의 개인생활공간에 대한 욕구

		평균희망갯수	평균희망면적
침 실		2.9개	4.8평
욕 실		1.2개	1.8평
거실	독립형	1개	7.2평
	L-D-K	1개	5.6평
부엌	독립형	1개	3.4평
	D-K	1개	5.4평
식 당		1개	3.5평

(3) 노후생활주택단지의 공동생활공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90.0%가 회의실과 오락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손님방에 대해서는 20.0%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생활여건시설중 쇼핑센터, 슈퍼마켓, 약국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은행은 96.7%가, 세탁소는 9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5)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오픈 스페이스 공원, 산책로, 경작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가생활시설중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6.7%가 도서관을, 50.0%가 다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6) 노후생활주택의 가스, 전기시설, 냉·난방

씨스템, 방법, 공공사무처리, 기타 시설 등의 관리 방법으로는 단지공동관리방법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신문과 우유는 각 unit 까지 배달되는 개인 관리방법을 희망하고 있었다. 우편물의 경우는 단지공동관리방법에 대한 희망과 개인관리방법에 대한 희망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2. 제 언

본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1) 은퇴후에도 기존자녀와 별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노후생활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들이 노후생활주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입주할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분야에서의 홍보와 제동을 통해 노후생활 주택단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노후생활을 위한 이상적인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었으나 노부부만 살고 있는 가정은 난방 및 방범등의 관리상 문제로 인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생활주택을 단독주택단지로 형성할 경우는 아파트가 지니는 관리상의 장점을 보완시켜 계획해야 할 것이다.

4) 주택의 평수는 관리비와 관계되므로 평수는 작으면서 생활공간의 내용은 확대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역 및 가구시설의 다양성을 연구하여 주택계획에 도입함으로써, 좁은 집도 필요에 따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처리방법이 요구된다.

5) 조사대상자의 50%가 욕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 손잡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노인주택계획시에는 욕실에 안전손잡이 부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노인들의 취미생활조사결과, 수영이나 테니스, 탁구 등의 운동보다는 산보나 조깅, 정원손질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시설의 필요도 조사결과에서도 공원, 산책로, 경작지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으므로, 노후생활주택의 단지선정 및 계획시에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단지의 관리방법은 신문, 우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단지공동관리를 희망하였으므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단지의 관리는 단지공동관리체제로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와 관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래의 노후생활주택에 대한 연구는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노후생활주택단지 개선 방안 및 실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계층과 지방을 대상으로 한 평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성문, "주거환경—인간을 중심으로," 「주택」, 1978.
- 박재간, 이정숙, 김태현, 「노인여가시설 및 그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84. 4.
- 박태환, "노인집합주택의 계획과 실제—호주의 실험 중심," 「대한건축학회지」, 제27권 115호, 1983.
- 윤종주,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982.
- 이영석, 「주거환경계획」, 신학사, 1984.
- 정신영, "노인과 신체장애자를 위한 설계기준—스코틀랜드 건축 기준소개," 「건축사」, 1978. 4.
- Carp, F.M., "Impact of Improved Living Environment on Health and Life Expectancy," *The Gerontologist*, Vol. 17, 1977. 6.
- Davis, H.L. and B.P. Rigaux, "Perception of Marital Roles in Decis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June, 1979.
- Green, I., et al., *Housing for the Elderly; The development and design process*, van Nostrand Reinhold Co., 1974.
- Havighurst, R.L., "Understanding the Elderly and the Aging Proc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April, 1974.
- McPherson, B. and N. Guppy,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Vol. 34, No. 2, 1979.
- Meeks, C.B.; *Housing*, Prentice-Hall, Inc., 1981.
- Meeuwig, M.J., "Housing and Activities of the Elderly,"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2, No. 8, 1970.
- Morris, E. and M.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John Wiley and Sons, 1978.
- Pringle, B.M., "Housing Living Arrangement for the Elderly—Some ideas from Northern Europe," *Housing and Society*, Vol. 5, No. 1, 1978.
- Raschko, B., *Housing Interiors for Disabled and Elderly*, Van Nostrand Reinhold Co., 1982.
- Scottish Development, *Housing for Old People—with design standards for the disabled*, Bulletin 3, Edinburgh: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0.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ousing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1974.
- Zeisel, J., E. Gayle, and S. Demos, *Low Rise Housing for Old People*, Zeisel Research, 1977.